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청년농 소통간담회 개최

✎ 장병욱 기자 | ⌚ 승인 2026.04.05 12:57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영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영천지사가 청년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지난 2일 지사 소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공사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존 영농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 과제 발굴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성공 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춘희 영천지사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장병욱 기자